

신태용 감독 “스웨덴전부터 통쾌한 반란 일으키겠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월드컵 출정식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태극전사들 출사표



손흥민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국민 얼굴에 웃음꽃
가득 피게 준비하겠다



기성용
개인적으로 기대가 된다
주장으로 선수들 잘 이끌고
국민에 기쁨 주도록 노력



이승우
이거 실화냐?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
많이 배우겠습니다



이재성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멋진 경기 보여줘야죠

정장 단복 입고 모델처럼 런웨이 ... 차범근·홍명보·최순호 등 레전드 선배들 격려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국민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게 준비하겠습니다.”(손흥민), “(월드컵 출전 ‘5글자 소감’을 묻자) 이거 실화냐? 많이 배우겠습니다.”(이승우)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2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월드컵을 향한 히만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출정식에는 부상으로 낙마한 권창훈(디종)을 제외한 27명의 대표팀 선수 가운데 오후에 합류한 권경원, 김진현, 김승규, 정우영을 뺀 23명의 선수가 자리했다. 선수들은 특별히 제작한 정장 단복을 입고 모델처럼 런웨이를 걸어 팬들과 마주했다.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홍명보, 최순호, 서정원, 최진철 등 포지션별

‘레전드’ 선배들도 함께 했다. 선수들은 비장하게, 혹은 툭툭 튀게 자신만의 출사표를 던졌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은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국민과 축구팬이 우리 팀을 응원하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황희찬(잘츠부르크)은 차범근 전 감독을 향해 “많이 배우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고, 김신욱(전북)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동료와 팀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차 전 감독은 “끼를 발휘해 견고한 벽을 허물어달라”고 당부했고, 최순호 포항 감독은 “능력에 한계선은 없다”고 힘을 실어줬다.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질 미드필더진은

A매치 100경기 출전을 앞둔 ‘주장’ 기성용(스완지)이 든든히 이끌고 있다. 기성용은 “부상 선수도 나오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된다. 주장으로 잘 이끌어 국민에게 큰 힘을 주고 기쁨이 되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집 명단에 ‘깜짝 발탁’된 스무살 막내 이승우(베로나)는 첫 출전 소감을 다섯 글자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거 실화냐”라며 웃었다. 이승우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대표팀에 들어가 너무 기분이 좋고 떨린다. 최고의 선수들과 뛰면서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역시 극적으로 승선한 문선민(인천)은 “투지 있는 플레이와 저돌적인 모습”을,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은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인던 남아공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약속했다. 이재성(전북)은 “비록 상황이 어렵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당당한 출사표를 밝혔다. 대표팀을 이끌 신태용 “3전 전패를 걱정하는데, 우리 전사들이 스웨덴전부터 1승을 거둬으로써 환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웨덴과 1차전 승리를 시작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 통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담대한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권창훈을 뺀 27명의 예비 태극전사들은 6월 3일 출국 전까지 훈련과 두 차례 국내 평가전을 통해 최종 23명에 들기 위한 테스트를 받는다.

/연합뉴스

충장중 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대회 우승

충장중이 광주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이 됐다. 충장중은 최근 무등경기장에서 끝난 협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작년 우승팀인 진흥중을 포함한 4개 야구팀이 참가해 리그전으로 승부를 겨뤘다. 진흥중을 11-3, 5회 7점 콜드게임으로 꺾은 충장중은 무등중과의 경기에서도 9-2, 5회 콜드게임 승을 거뒀다. 충장중은 마지막 상대인 동성중과의 경기에서는 승부차기 접전 끝에 8-5로 이기

며 우승을 차지했다. <협회장기 수상내역> ▲우승 : 충장중 ▲준우승 : 무등중 ▲최우수선수상 : 김대현(충장중) ▲우수투수상 : 이강민(충장중) ▲타격상 : 김환(5타수4안타-0.800·충장중) ▲최다도루상 : 서영진(5개·충장중) ▲최다타점상 : 김대홍(5타점·무등중) ▲감독상 : 이준혁(무등중) ▲미기상 : 박상욱(무등중) ▲감독상 : 나길남(충장중) ▲지도상 : 오동원(충장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승혁, 죽느냐 사느냐 문제 오늘 챔스필드서 kt전 선발

T 타이거즈 전망대
kt와 NC 상대 6연전
KIA, 순위 싸움 시동

■ 2018 정규리그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45	30	0	15	0.667	0.0
2	SK	45	26	0	19	0.578	4.0
2	한화	45	26	0	19	0.578	4.0
4	KIA	45	23	0	22	0.511	7.0
5	롯데	44	22	0	22	0.500	7.5
6	LG	48	23	0	25	0.479	8.5
6	넥센	48	23	0	25	0.479	8.5
8	KT	46	20	0	26	0.435	10.5
9	삼성	47	19	0	28	0.404	12.0
10	NC	47	18	0	29	0.383	13.0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한승혁의 문제다.

KIA 타이거즈의 한승혁이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주권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다.

한승혁은 지난 4월 4일 SK 원정에서 조기 강판된 정용운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4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며 팀의 9-6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첫 등판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한승혁은 ‘4-5 선발 대란’ 속에 기회를 얻어 이후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르려고 있다.

초반에는 한중 정교해진 제구와 허를 찌르는 커브로 어필을 했던 한승혁이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낙점점을 받았다. 두산 홈경기에서 3.1이닝 7실점으로 난타를 당한 한승혁은 넥센 원정에서는 2.1이닝 동안 3개의 볼넷을 내주는 등 제구 난조 끝에 5실점을 남기고 역시 조기 강판됐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시 이닝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5.2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친 한승혁이 선발로 나온 6경기에서 버텨준 이닝은 28이닝. 한승혁이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팀은 1승 5패를 기록했다.

한승혁의 선발 운명이 걸려있는 이번 경기는 순위 싸움의 타닝포인트이기도 하다.

주말 SK를 상대로 싸움이 3연승을 거둔 KIA는 5할 승률에서 ‘1’을 더하면서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 모양새다.

22일 경기에는 팀의 4연승과 kt전 열세 만회라는 타이틀이 걸려있다. KIA는 올 시즌 개막시리즈에서 kt를 만나 1승1패를 주고 받은 뒤, 수원 원정길에서 루징 시리즈(1승 2패)를 당하고 내려왔다.

연승을 잇고 열세를 만회해야 하는 게 한승혁의 역할이다. ‘좋은 기억’을 떠올

릴 필요가 있다.

한승혁이 올 시즌 선발로 나와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경기의 상대가 바로 kt다.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으며 1468일 만에 선발승을 거두는 등 한승혁은 kt에 그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통산 상대 성적은 13.2이닝 9피안타(1피홈런) 3볼넷 13탈삼진 2실점, 평균자책점 13.2다.

kt 주권은 KIA에 올라 웃었다. 지난 3월 25일 개막시리즈에서 kt의 두 번째 선발로 출격할 주권은 이범호에 스리런을 얻어맞는 등 1회에 6실점을 하며, 3이닝 7실점으로 고개를 숙였다. 주권은 이후 두산전에서도 4이닝 8실점을 기록하면서 퓨처스행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절치부심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낸 주권은 4월 28일 1군 복귀전에서 KIA 타선을 7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묶으면서 패를 안겨줬었다.

KIA는 임기영-팻단-양현종의 호투 릴레이 속에 주말 3연전을 스윙으로 장식했다. 한승혁이 선발진의 호투 릴레이를 잇고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NC와의 원정길에서 다시 선발로 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t와 NC를 상대하는 이번 주, 최형우와 김주찬이 각각 2700루타와 2500루타에 도전한다. 최형우는 통산 20번째 2700루타에 두 개를 남겨두고 있고, 김주찬은 14루타를 더하면 29번째 2500루타의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